

투기지구 지정·해제 '약발' 없다

광주 집값 하락·미분양 증가 시장 '공공' 금융·세제 지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난해 말 광주 남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광주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광주 지역 아파트시장에는 여전히 '한파'가 풀리지 않은 채 공공 얼어 붙어 있다.

애초 규제 자체가 지방에는 의미도 없었고 해제시기도 늦어 해제효과도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광주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

규제 해제 이후에도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주택이 늘어나 시장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가 해제될 경우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숨통'을 뚫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동산규제 해제 조치 이후로도 시장 전체가 계속되면서 '늑장 대처'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정

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지방 주택 시장이 장기간 활력을 잃은 데다 투자심리 조차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서 규제 해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남구를 제외한 광주 4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은 되레 떨어졌다.

구별로는 광산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6개월간 집값이 1.2% 하락했고, 동구와 북구도 각각 0.7%, 0.2% 떨어지는 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광산구는 지난해 7월

동·서·북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9월에는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벗어났지만 집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광주 전체 미분양주택 9천429가구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6천여가구의 미분양이 쌓이면서 집값 하락과 함께 '이중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선 주택수요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과 함께 전매기간 완화·철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영위기' 농업인 땅 사준다

농림부 1천억 배정 ... 2월·7월 두차례 신청 받아 매입후 농가 임대 ... 영농규모화 사업 3,400억 지원

정부가 올해 경영위기에 몰린 농업인을 돕기 위해 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다음달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 가운데 1년 이상 농업 재해 피해율이 50%를 넘었거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땅을 농지은행이 사들인 뒤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농가는 토지 매각대금으로 빚을 청산할 뿐 아니라 매각대금 1% 이하의 낮은 임대료만 물고 같은 땅을 5~8년 동안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영회생이 회복되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아울러 농림부는 올해 '영농규

모화 사업'에도 3천4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나이가 많거나 직업을 바꿔 농사를 그만두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촌공사가 사들여 전업농이나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창업농 등에 매각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농지 매입비나 임대차 선금금 등을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원대상 농지 종류에 논의의 발도 포함되고, '자기부담 10%'의 조건도 없어졌다.

경영회생지원 및 영농규모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농업인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1577-7770)에 신청하면 된다. /연협뉴스

중기청, 환위험 관리 우수 기업 지원

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 수출금융 지원 확대

최근 환율이 불려코스터를 타는 가운데 환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기청에 환해지 방법을 묻는 문의전화와 쇄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센터장 박춘근)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위험 해지기법을 활용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수출지원센터는 수출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실태(40점)와 환해지의 충실도(60점)를 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기업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

증해준다.

인증기업에게는 환차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정부와 수출유관기관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시 우선 선정하며, 수출금융지원을 확대해준다. 또 수출보증과 보험지원을 확대해 주며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과 수출금융 지원시 가점을 부여한다.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은 연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 360-9192.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금호, 대한통운 인수 양해각서 체결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 박삼구)은 지난 25일 서울 대한통운 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중목 대우건설 사장,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강주안 아시아나항공 사장.

금호 신사옥 광화문 랜드마크로

종로구 신문로 신축 ... 건물 전체 전광판 이용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새로 짓는 사옥을 서울 심장부인 광화문의 랜드마크로 만든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에 짓고 있는 신사옥의 건물 전체를 전광판으로 이용하는 등 조명을 최첨단으로 꾸며 광화문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완공예정인 금호아시아나 신사옥은 현재 그룹 사옥으로 쓰고 있는 금호생명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27층 건물로 성냥갑 모양이 아닌 곡선으로 건물이 처리돼 세련됐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의 신사옥은 금호생명과 마주하는 건물의 벽면이 아닌 반대쪽 벽면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와 홍보 등을 실시하며, 건물 전체에 조명을 설치해 시각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사옥에 전광판 등이 설치되는 벽면은 특수공과 시공, 남대문에서도 볼 수 있어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그룹측은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농협, 친환경 농약 공급량 늘었다

전남지역본부, 작년 31억 어치 지원 ... 전년보다 8배 증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생물농약 지원량이 크게 늘고 있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31억2천600만 원 어치의 친환경 생물농약을 도내 농가에 공급했다. 이는 2006년(3억7천200만원)에 비해 무려 8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영기 전남본부 자재·양곡팀장은

"올해에는 친환경 농약 공급량을 더욱 늘려 지난해 전국 공급량(91억3천만원)의 34.2%에 불과한 것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수입상을 통해 농약업체를 직접 수입, 국내에서 가공·생산해 일관성 품보다 10~30% 낮게 공급하는 원재

농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품목도 9개 늘어난 68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계통사업 품목도 지난해보다 58개 증가한 615개 품목으로 확대, 농약가격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와 관련, 전남본부는 지난 25일 대강당에서 도내 회원농협 농약담당자 360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 농약사업 관련교육을 실시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지역 업체 66% "설 상여금 지급"

광주·전남 185곳 조사 ... 자금사정 악화 지난해보다 감소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되면서 설 상여금 지급하는 업체들도 감소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6.4% 줄어든 66.3%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 휴무계획은 4일이 56.6%로 절반을 넘었고, 3일이 29.2%였다. 또

이들 업체들은 임금과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평균 1억7천600만원이 필요하나, 이중 72.1%인 1억2천700만원만 확보했다고 응답했다.

현재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는 45.4%가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금융기관과 거래하면서 ▲부동산담보 요구(25.5%) ▲고금리(21.7%) ▲보증서 요구(21.4%) 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수출 100억달러 기념 광주시, 축제 한마당

소호 사업자 'Biz 프리미엄 카드' 판매

농협광주지역본부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25일부터 SOHO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Biz 프리미엄 카드' 판매에 들어갔다.

Biz 프리미엄 카드는 기존 결제기능에 국한됐던 기업카드와는 달리 유·골프·호텔 이용과정에서 할인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등 개인용 플래티늄 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적인 혜택을 강화한 상품이다.

주요 서비스는 ▲무인경비업체(캡스) 이용시 10% 할인 ▲택배서비스

(한진택배) 10% 할인 ▲사무용품 구입시 5~7% 할인 ▲S-Oil 주유시 8당 60원 할인 ▲전국 모든 음식점과 백화점, 대형할인점 이용시 5% 할인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 10% 할인 등이다. 또 이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국내 특급호텔, 골프시설, 고급 콘도와 펜션, 항공권 구입, 공항 프리미엄 리무진, 고급 스파 등을 이용하면 VIP 개인고객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이 카드로 월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경우 0.1%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시가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 축제 한마당' 행사를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말 1996년 광역시 승격 이후 21년 만에 연간 수출액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경과 보고, 수출 유공업체 포상,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근로자, 시민 11명이 전하는 영상 메시지 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식후 행사는 현수, 조항초, 최유나 등 유명가수 8명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에 이어 냉장고, 에어컨, 드림세탁기 등 경품 추첨행사도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축확장개업 일식오리의 명가 청하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회
단체완영 / 주차장완비

청하 223-7037 / 224-5002

베이징키친

북경 특정 등 요리주이

각종 담겨 계모임 필수 (대형 모임비)

972-5282